



기아 더뉴 카니발



기아 쏘렌토

‘국민 인기차’ SUV, 하이브리드가 대세

쏘렌토 전체 판매 2/3 차지...싼타페도 내연기관 모델 추월 그랜저·K8 하이브리드도 인기...올해 판매 호조 이어갈 듯

지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스포츠 유틸리티차(SUV)가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기아 간판 차종 중 내연기관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많이 팔린 차종도 4개로 늘었다. 7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쏘렌토(8만5811대)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66.6%에 달하는 5만7109대였다. 2022년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71.7%)보다는 줄었지만, 판매 대수라면 보면 7000대 이상 많이 팔

렸다. 쏘렌토는 지난해 하이브리드 모델 덕에 기아 차종 가운데 내수 판매량 1위를 차지했다. 올해 새롭게 선보인 현대차의 싼타페도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의 대표 중형 SUV인 싼타페의 전체 판매량(5만1343대) 중 하이브리드 모델(2만9854대)이 차지하는 비율은 58.2%로 집계됐다. 내연기관 모델보다 하이브리드 모델이 더 많이 팔리기는 2021년 7월 싼타페 하이브리드 출시 후 처음이다.

싼타페 하이브리드 판매는 2021년 전체 싼타페 판매의 23.3%에 그쳤지만, 2022년 47.3%를 기록하는 등 점차 많아지고 있다. 싼타페는 작년 8월 출시된 5세대 완전전경 모델을 앞세워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연간 판매량 5만 대도 돌파했다. 현대차는 싼타페 5세대를 출시하면서 4세대와 달리 휘발유와 하이브리드만으로 동력계를 구성했다. SUV뿐만 아니라 세단에서도 하이브리드의 인기는 이어졌다. 지난해 국내 ‘베스트 셀링카’에 오른 현대차 그랜저의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은 내연기관 모델보다 많다. 전체 내수 판매 대수 11만3062대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은 6만1907대(54.8%)에 달했다. 2013

년 12월 출시된 하이브리드 모델이 처음으로 전체 판매의 절반을 넘겼다. 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 모델의 쌍끌이 효과로 그랜저는 지난해 국내에서 11만362대 팔리며 3년 만에 최고 실적을 냈다. 지난해 기아의 K8 하이브리드 모델 판매량 역시 내연기관 모델을 앞섰다. K8 전체 판매량 4만437대 가운데 하이브리드 모델이 차지하는 비율은 62.3%(2만5211대)로 나타났다. 하이브리드 인기는 광주에서도 실감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기준 광주에 등록된 하이브리드 차량은 2만9369대에서 지난해 11월 3만9183대로 33.4%(9814대) 늘었다. 이처럼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가 높아진 주된 이유로는 오랜 충전 시간과 인프라 미흡 등으로 전

기차 구입을 꺼리면서도 고연비와 친환경을 가치 있게 여기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올해 쏘렌토 하이브리드 차량을 출고했다는 A씨는 “내연기관보다 가격이 비싸지만, 연료비가 저렴해 처음부터 하이브리드 구매만 고려하고 있었다”면서 “연료비 걱정이 덜한 전기차는 인프라나 안전성 면에서 아직 이른 것 같다는 생각이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를 하는데 큰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는 올해도 국내 시장에서 하이브리드 판매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상품성 있는 하이브리드 차종도 늘고 있다. 그 예로 기아는 지난해 11월 다목적차량(MPV)인 카니발에 1.6L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한 모델을 출시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EV9 ‘북미 올해의 차’ 선정... ‘SUV 명가’ 재확인

기아의 플래그십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EV9이 북미 시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기아는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미시간주 폰티악에서 열린 ‘2024 북미 올해의 차(NACTOY)’ 시상식에서 EV9이 유틸리티 부문(이하 SUV 부문) ‘북미 올해의 차’로 최종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북미 올해의 차’는 차 업계 오스카 상으로 불릴 만큼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고 권위는 북미 올해의 차 선정의 공정성과 신뢰도에서 비롯됐다. EV9의 수상은 2020년 텔루라이드, 2023년 EV6에 이어 5년간 3번째 수상이다. 특히 기아는 북미 올해의 차 수상 차종 모두가 SUV로, 자동차 시장의 최대 격전지인 미국에서 ‘SUV 명가’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한 EV6와 EV9이 연이어 북미 올해의 차로 선정돼 우수한 전기차 상품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2024 북미 올해의 차 SUV 부문에는 기아 EV9을 비롯해 현대자동차 코나(EV 포함), 제네시스 GV70 전동화 모델 등 총 3개 모델이 최종 후보에 올랐으나 접전 끝에 EV9이 최종 선정됐다. 북미 올해의 차 심사위원단은 EV9을 ‘울창하고 담대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상품성을 모두 갖춘 차’로 평가했다. EV9의 수상으로 한국 자동차는 최근 6년 간 북미 올해의 차를 다섯 번 수상하는 기록을 달성했다. 한국 자동차의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이번이 8



번째다. 2009년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세단(BH), 2012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2019년 제네시스 GV70, 현대자동차 코나, 2020년 기아 텔루라이드, 2021년 현대자동차 아반떼, 2023년 기아 EV6가 선정된 바 있다. 기아 관계자는 “EV9은 3월 대형 SUV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북미 고객들에게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이번 북미 올해의 차 수상은 EV9이 최고의 SUV임과 동시에 전기차의 표준으로서 인정받은 성과로 계속해서 좋은 활약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벤츠 사회공헌위 ‘도시숲프로젝트’ 서울시장 표창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메르세데스-벤츠 그린플러스 도시 숲 프로젝트’가 서울특별시 시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벤츠 사회공헌 위원회는 서울시, 아이들과미래재단과 함께 지난 2022년 ‘그린플러스 도시 숲 프로젝트’ 업무 협약을 맺고, 서울 4개 지역에 총 9300여 그루를 식재하는 등 도심 내 훼손되거나 방치된 녹지 개선을 위한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소나무 7주를 기증하며 서울 광장숲 조성에도 참여했다. 도시 대기질 개선과 열섬현상 저감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시민들이 도심에서 녹색 공간을 접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 이은정 위원은 “지난 2021년, ‘메르세데스-벤츠 그린플러스’ 출범 이후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탄소중립



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며 “앞으로 도시사회에 관심을 갖고 시민들을 위한 생활 밀착형 기후행동 프로젝트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사회공헌위원회는 2021년부터 탄소중립 기후행동 실천 프로그램 ‘메르세데스-벤츠 그린플러스’를 운영하며 어린이 환경교육, 임직원 플로깅, 탄소중립에 대한 대중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환경 관련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국민 절반 자율주행차 구매 의향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KATRI)이 설문조사 플랫폼 엠브레인을 활용해 전국 14~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5.1%는 “자율주행차를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26.2%, ‘의사를 확실히 표현하지 않은 ‘보통’은 28.7%였다. 구매 의향이 있다는 답변을 연령대별로 보면 10대가 53.2%로 가장 높았다. 이어 20대(47.5%), 50대(47.2%), 40대(45.6%), 30대(44%), 60대(42.3%) 순이었다. 70대는 34.4%에 불과했다. 자율주행 대중교통을 이용할 의사와 관련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47.5%가 ‘있다’고 답했다. ‘없다’는 22.2%, ‘보통’은 30.3%였다. 역시 10대에서 66.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70대에서 39.1%로 가장 낮았다. 20대는 52.5%, 30대는 40.5%, 40대는 41.9%, 50대는 46.3%, 60대는 44.6%였다. /연합뉴스

어린이 통학버스·택배차, 경유차 사용 금지

올해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 연비·온실가스 기준도 강화 소화기 설치 5인승으로 확대

올해부터 자동차 안전 및 환경 관련 규제가 강화된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가 7일 정리해 발표한 ‘2024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르면 환경 부문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 화물차량, 여객운송플랫폼 사업용 차량의 경유차 사용이 금지됐다. 지난 1일 이후 새롭게 구매하는 차량부터 적용됐다. 또 연도별 달성해야 하는 승용차 평균 연비 및 온실가스 기준도 강화됐다. 평균 연비는 기존 L당 24.4km에서 25.2km로, 평균 온실가스는 km당

95g에서 92g으로 각각 변경됐다. 차량 안전과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일부터 승용차 소화기 설치 및 빗지 의무 적용 차량이 기존 7인승에서 5인승으로 확대된다. 또 전복 시 연료장치 안전성 기준을 강화하고, 기동 축전 충돌 안전성 및 고정벽 정면 충돌 안전성의 적용 차종을 확대한다.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는 연도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 이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됐다. 아울러 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2026년까지 경차 유류세 환급이 연장된다. 배기량 1천cc 미만의 경차를 보유한 사람은 휘발유·경유에 대해 L당 25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도는 연간 30만원이다. 또 지난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는 2개월 연장돼 오는 2월 29일 종료된다. /김민석 기자 mskim@

현대차·기아 차 안에서 가전 원격 제어

삼성전자와 홈투카·카투홈 서비스 제휴 협약

삼성전자의 가전제품에 적용된 사물인터넷(IoT) 플랫폼 스마트싱스가 현대차·기아 차 안에서 원격 제어할 수 있게 된다. 현대차·기아 차량에 적용된 삼성 스마트싱스의 예상 이미지. <삼성전자 제공>

삼성전자와 현대차·기아는 홈투카(Home-to-Car)·카투홈(Car-to-Home) 서비스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향후 현대차·기아 고객은 차량 내에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화면 터치나 음성 명령으로 집에 있는 전자기기를 원격 제어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가정에 있는 인공지능(AI) 스피커나 TV,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원격 차량 제어도 가능해진다. 예컨대 차를 몰고 귀가하는 길에 집에 있는 에어컨이나 TV, 조명을 미리 작동하거나 집에서 나가기 전 차량 상태를 조회하고 냉난방 공조 기능을 미리 실행할 수 있다. 출근을 준비하면서 스마트폰과 TV 화면으로 전기차의 배터리 잔량과 주행 가능 거리 등 정보를 확인할 수도 있다. 현대차·기아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후 무선



(OTA)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차량에도 기능을 제공할 계획이다. 박찬우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미래 라이프스타일에 최적화된 홈투카 및 통합 홈에너지 관리 서비스가 가능해질 것”이라며 “스마트싱스 플랫폼과 자동차를 연결해 고객경험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이밖에 자회사 하만과 협력해 카투홈 서비스 등 차량 경험을 강화하고 있다. 하만의 ‘레디 업그레이드’(Ready Upgrade)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디지털 콕핏 패키지 제품으로, 스마트싱스를 탑재할 수 있어 카투홈 서비스 활용 가능성이 크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김민석 기자 mskim@